

주간기도정보

2025. 10. 21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행하라”

“교회학교 교사 모십니다”…박람회까지 열고 러브콜

교회, 구인난에 자구책 마련 분주



광역시 소재 2,500여 명이 출석하는 A교회는 지난해 진땀을 빼는 연말을 보냈다. 두 달에 걸쳐 예배 광고 시간에 교사 모집 소식을 안내했지만, 신청자는 한두 명에 불과했다. 연말까지 교사 충원을 마무리하지 못한 교회는 결국 올해 초까지 성도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간신히 부족한 인원을 채웠다.

교회학교 교사직을 둘러싼 교인들의 소극적인 반응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목회데 이터연구소가 발행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16.1%였던 교인들의 교회학교 교사 봉사율은 코로나19 이후 11%로 줄었다. 또 코로나19 이전 교사로 봉사했던 이들 중 44.5%는 “코로나 이후 봉사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해 식당, 성가대, 교회학교 등 총 8 가지 영역 가운데 가장 높은 답변 비율이었다.

전문가들은 교회학교 교사 충원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젊은 세대의 교회 활동 기피에서 찾았다. 박상진 장로회신학대 명예교수는 “교회학교 교사의 주축이었던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결혼한 3040세대는 자기 자녀 양육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신보다 정착이 우선이다. 예비 교사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안에서 신앙 계승의 중요성을 격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회들은 교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광주 월광교회(김요한 목사)는 지난달 ‘다음세대 교사 박람회’를 열어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10개 부서를 소개했다. 학부모들이 단체로 자원에 나서며 60여 명이 새롭게 신청했다. 경기도 고양 예수인교회(민찬기 목사)도 교육부서 사역 박람회를 통해 교회학교의 필요성과 의미를 나누며 ‘부르심’의 가치에 초점을 맞췄다.

대구 범어교회(이지훈 목사) 역시 3주간 교사 박람회를 열고 내년도 사역 계획을 공유했다. 주일학교 교육디렉터 김현덕 목사는 “기존 교사 은퇴와 학생 수 증가로 부서별로 10명 이상 교사가 더 필요하다”며 “성도와 학부모 모두에게 교사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 모집뿐 아니라 구조 자체를 재정비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 경산중앙교회(김종원 목사)는 최근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설명회에서 유년부·초등부·소년부를 ‘어린이부’, 중·고등부를 ‘청소년부’로 통합하는 개편안을 채택했다. 새로운 교역자와 교사 확보 어려움 등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주일학교 교사 부족은 인력난을 넘어 다음세대 신앙 계승과 직결된 문제”라며 가정과 교회가 함께 아이들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부모가 교회학교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과까지 도맡는 교회들이 있다”며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돋는 좋은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형태의 예배나 교육 방식을 통해 교사 인력난을 완화하면서도 부모가 신앙 전수의 주체로 다시 서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에베소서 5:1-2)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한계시록 3:19,22)

하나님, 다음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 속에서 주일학교 교사마저 기피하고 자기의 일에 묻혀 헌신과 믿음의 계승이 사라져가는 한국교회의 실상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희미해지고 마음이 둔하여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사 대속하신 은혜를 모든 성도의 심령에 새겨주십시오. 주님에게서 멀어졌던 모든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즐거이 순종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며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움 삼으라”

사면도 뇌물 바쳐야 가능?…교화소 간부들에겐 돈벌이 기회

가족들이 상납한 거액의 뇌물로 사면 명단 올라



북한이 올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사’(사면)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사면 대상 선정 과정이 최고지도자의 은덕이 아닌 돈이 좌우한다는 내부 증언이 나오고 있다. 곁으로는 인도주의 조치처럼 포장되지만, 실상은 교화소 간부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쟁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당 창건 80돌을 맞아 단행된 대사로 풀려나게 된 일부는 가족들이 1년 전부터 안전기관이나 교화시설 간부들에게 많은 액수의 뇌물을 상납했기 때문에 명단에 포함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면은 3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형기를 채웠더라도 돈이 없으면 이름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 북한 주민들 사이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에 따라 “대사도 결국 돈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냉소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서 사면은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 수립일, 당 창건일 등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기념일의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맞아 주로 단행된다. 북한 당국은 이를 최고지도자의 은혜로 선전하며 주민 충성심 결집에 이용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면권을 주고 있는 교화소 간부들이 ‘명단에 넣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구조가 고착되어 있다.

열악한 교화소 내 환경은 이러한 구조를 더욱 부추긴다. 수형자들은 최소한의 끼니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고된 노동에 시달려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다. 소식통은 “결국 돈 없으면 형기를 다 채워야 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만 다시 바깥세상을 볼 수 있다”며 “이에 가족들이 집을 팔거나 빚을 내서라도 사면 기회가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 한다”고 말했다.

실제 회령시의 한 수형자 가족은 지난해부터 사면 가능성은 예상하고 교화소 간부와 연결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상납했다. 총 11만 위안(한화 약 2,167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이 중 1만 위안은 연결책에게 인사비로 건넸고, 나머지 10만 위안은 간부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전달됐다. 이는 혹시 모를 사기나 변심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는 설명이다.

해당 수형자는 2021년 중국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돼 교화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당시 휴대전화에 한국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간첩행위로 간주되어 8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단순한 중국 연락 용도로 판단됐다면 가벼운 처벌에 그쳤겠지만, 한국과 연계된 정황이 드러나는 순간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코로나 이후 중국 손전화(휴대전화) 사용과 대남 연계 단속이 크게 강화되면서 한국 관련 기록이 나오면 최소 10년 이상 선고된다”며 “이번 대사에서도 이런 중형 수형자 중 일부는 겨우 1년 감형만 받고 풀려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출처: 데일리NK 종합).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편 146:3,5)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주님께서 시온에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이사야 59:9,20, 새번역)

하나님, 기념일을 맞아 수형자들의 사면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공평과 공의가 이들에게 미치지 못해 실제 그 대상이 되기까지 많은 액수의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북한의 실상을 고합니다. 비단 사면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뇌물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악습과 자신의 위치를 악용하여 탐심을 채우는 자들을 꾸짖어 주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영혼들의 눈을 밝히사 하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복을 주옵소서. 특히 별히 간한 자들에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십자가 복음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시온의 속량자로 오신 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어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스마트폰만 보는 아이, 어떡하죠…“스마트폰 조절력 키우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세미나’서 조절력 기를 세 단계 전략 제시



집집마다 전쟁이 벌어진다. 부모와 자녀의 긴장 관계를 고조시킨 건 장난감 정도로 생각했던 손바닥만 한 도구인 스마트폰이다. 아이를 잠시 달래주던 마법의 양육 도구가, 시간이 지나 부모에게 적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스마트폰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둘의 차이가 뭘까요. 온종일 블록을 갖고 놀거나 숨바꼭질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빼앗으시겠다고요. 승산 없는 전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파밀리 김향숙 공동대표는 11일 서울 삼일교회(송태근 목사)에서 열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세미나’를 통해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밥 먹자고, 학원 갈 시간이라고, 대화 하자고 소리쳐도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놓지 않으면 이미 자녀를 스마트폰에 빼앗긴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아·아동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유아·아동층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최근 1년 사이 25.9%로 0.9% 포인트 증가했고, 청소년은 42.6%로 전년 대비 2.5% 포인트 늘었다. 다만 김 대표는 “어릴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다”며 “아이들의 ‘조절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또 아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애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바탕으로 자녀들이 스마트폰 조절력을 기를 세 단계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아이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기, 2단계로 부모 혼자 지침을 세우지 않기, 마지막 단계는 규칙을 어겼을 때 격려하기이다.

김 대표는 “스마트폰 조절력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단계”라며 “다들 규칙만 세우려고 하는데, 규칙은 조절력을 길러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칙은 조절력의 결과물일 뿐”이라며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관계를 파괴하지 말고, 관계를 변화시켜 행동을 수정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어른인 여러분은 싫어하는 사람 명령을 듣고 싶은가요. 아이들 역시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상이 되세요. 자녀와의 관계를 잘 경작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 사용 지침은 자녀와 함께 정해야 하며, 아이가 주체적으로 세우고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김 대표는 “부모도 사용 자제를 규칙에 포함하고, 자녀가 어렸을 땐 격려하며 성공 경험을 떠올리게 해야 한다. 그런 경험이 쌓여야 통제력이 생긴다”고 말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고린도전서 1:8-9)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양방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시편 25:14-15)

하나님, 부모가 책임져야 할 자녀 양육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에 위탁한 결과 자녀세대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세대의 실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점점 줄어들고 디지털 세상 안에 매몰된 이 땅의 다음세대를 위해, 먼저는 부모세대가 주를 경외함으로 서서 자녀와의 진리의 교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다음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다음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 없는 거룩한 예수교회로 저들을 견고하게 하실 미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